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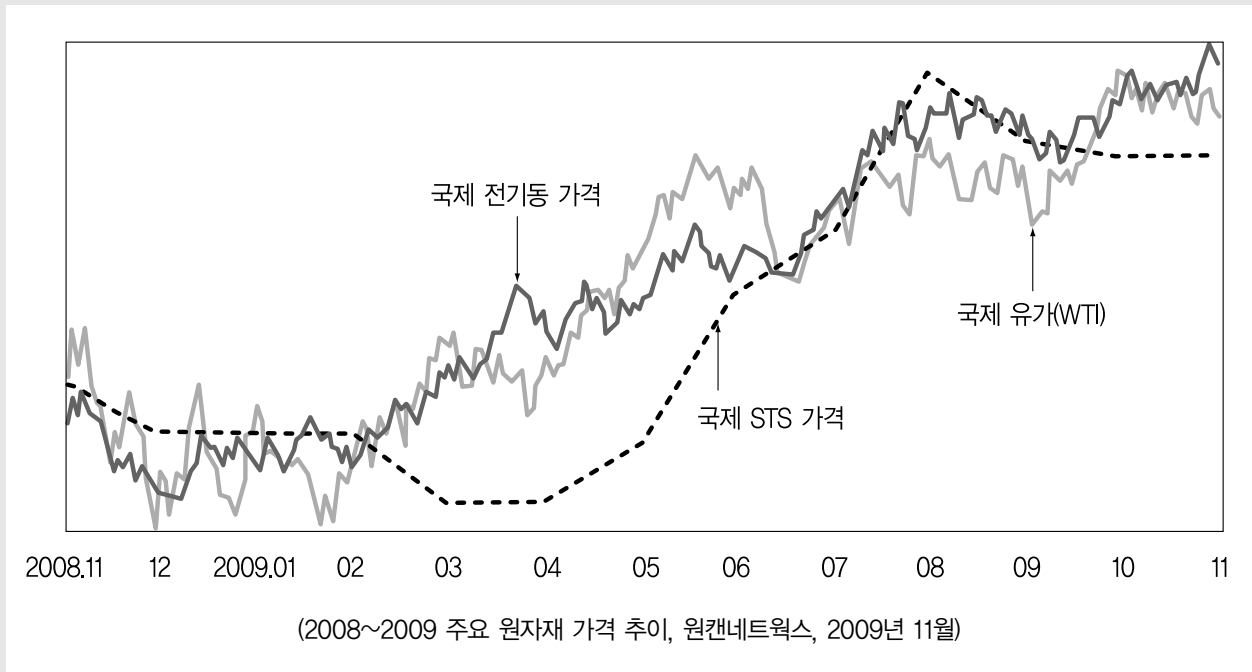
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

김현회 /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이번 달로서 2009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.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럴겠지만 특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혹독한 시련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. 그리고 아직도 해빙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경제, 원자재, 설비 자재의 흐름을 기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11~12월 자재 동향

자재 및 원자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에도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. - PVC제품을 제외하고는 환율의 하락과 실수요의 축소로 단가 인상 요인을 실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동(銅)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환율 하락 등으로 전기동 및 전기연을 비롯한 일부 비철 금속 제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. - 동관 가격은 여전히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이 없는 한 연말까지 단가 인가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.
STS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TS관은 11월에 소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 판매사들의 과다한 물량 확보로 인한 단가 하락 요인이 있어 단가 추이 지켜봐야 할 시점임.
PVC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부터 제조사들의 단가 인상 정책으로 판매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 제조사의 기존 단가 고수 입장이 발표되며 제조사간 눈치 보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. - 제조사들 중 일부는 강력한 단가 인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. - 환율 및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기존 단가를 고수하던 제조사도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임.
강관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강관 시장은 많은 혼란을 겪음. - 제조사들의 강력한 단가 정책에 따라 일부 대리점들이 단가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실수요의 위축으로 인한 단가 하락 요인이 많아 여의치 않음.
구매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 물량의 경우 하락 전망이 우세하므로 가격 추이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리함. - 내년 상반기 이후 수요가 늘어날 자재 위주로 선 구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

2008년 금융 위기로 급락했던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다.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그에 따른 국내 설비 자재 가격 변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. 첫째는 실수요의 측면이요, 둘째는 시장 수요 외적인 측면이다. 우선 지난 1년간의 자재 가격 변동은 다분히 시장의 수요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.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수요의 선행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.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본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.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장 외적인 요인 분석이다. 국제 유가만 보더라도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. 이는 달러 캐리(가치가 하락한 달러를 싼 금리에 빌려다가 원자재 등에 투자)라는 측면과 원자재 사재기 등이 그 원인이다. 그러나 달러 가치가 마냥 하락하지는 않을 것인 즉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엔 자재 가격의 급락도 점칠 수 있다. 이같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결론

적으로 국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시장 수요라는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연간 10~20%의 가격 상승이 적정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. ●

김현회(金炫會) 총괄본부장 프로필



- 現 원칸네트웍스(구 설비넷) 사업총괄본부장
-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(91년)
- 삼성그룹 공채 입사(91년, 삼성화재 발령)
- 홍보실 근무(사보, 사장단 연설문 작성, 사내방송PD, 언론·인터넷 담당 등)
-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(뉴미디어, 스토리텔링 등) 과정 수료
-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(PDA영업, 리플렛 기획 등)
- 인터넷사업팀 근무(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, 전자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)